



⑦ 연합뉴스 │ ⟨ IV 대통령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암; ⟩

Q

뉴스홈 | 최신기사

김해시, 공예·민속예술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포

송고시간 | 2022-03-23 11:46













이정훈 기자

지난해 11월 가입 후 선포식



김해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포

(김해=연합뉴스) 경남 김해시가 23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포식을 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오른쪽), 한경구 유네스코 한 국위원회 사무총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3.23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aman@yna.co.kr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선포했다.

김해시는 23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포식을 했다.

김해시는 공예, 민속예술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자격을 얻었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11월 김해시가 가진 공예, 민속예술 분야 역량을 높이 평가해 창의도시 가입을 승인했다.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첫발을 내딛는 김해시 발전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유네스코는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자 2004년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했다.

공예와 민속예술·문학·음악·디자인·미디어아트·음식·영화 등 7 개 분야에서 93개국 295개 도시(우리나라 11개 도시)가 유네스 코 창의도시 자격을 얻었다.

김해시가 가입한 공예·민속예술 분야는 59개 도시가 가입했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도자기 제작하는 김해시 장인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대국가 금관가야 중심지였던 김해시는 도예(분청사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예, 민속예술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도시다.

지금도 세계 최초 건축도자전문미술관인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분청도자기축제, 가야문화축제, 분청도자대전, 공예품대전, 전국가야금경연대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려 공예, 민속예술을 보존하고 계승한다.

공예협회, 도예협회, 민속예술보존회, 시립가야금연주단, 지역 40여 개 공예업체가 형성한 공방마을 등은 전문 인력을 지속해 배출한다.

창의도시 가입으로 김해시는 유네스코 로고를 사용할 권리와 정기총회 등 국제회의 참가 자격, 유네스코 다른 창의도시와 교류할 기회를 얻었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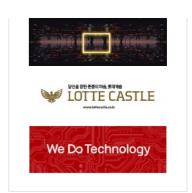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23 11:46 송고

#김해시 #유네스코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 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곡시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旨 결국 우크라에

▶ 02:22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크는 그대로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41 ^{철에 고발}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1 대병원 자원봉사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 56 재개 예열?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39 힐 예정"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광고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뉴스+

모바일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